

베드로전서 강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 (벵전 3:13~22)

반태호 목사 / 2004년 8월

문제와 어려움과 부족함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제임스 스콧 팩 박사는 그의 책에서 '삶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삶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삶이 어렵다는 진리를 깨닫기만 해도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불행의 의식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은 고난에 부딪히고, 그것을 넘어설 때 영적,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빛나는 사람이며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역경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되어

그러나 그동안 순탄한 길만 걸어오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성공의 정상에 이르기 전에 매도 맞고 실패도 겪으면서 단련된 사람이 정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은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걸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빛나게 하고 인격적인 완성을 가져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다 여러가지 시련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직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용기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오히려 고난의 때에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없이 고난

을 겪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지만 그럴지 못한 경우, 즉 회개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평탄하고 평화롭게 삽니다.

여러분,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 적을 만드는 일이 드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악독한 사람들만이 선을 싫어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에도 나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하는 사람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인자하고 선하게 행하면 남들도 좋지만 자기에게도 이롭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악을 행하면 당장 이로운듯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해악을 끼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핍박과 박해와 오해와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고난을 받을 때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것은 복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산상수훈을 기억하십니까? 8가지 복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는 자의 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은 열심을 행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빛이 납니다. 상을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할 때 신앙의 힘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역경의 때 힘을 내고 일어섭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고난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도 스스로 그렇게 말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43:5)라고 낙심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복입니다. 이때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신앙이 능력을 받고 빛을 발할 때가 이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의 기회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고난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낼 때 다른 이들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더 찬양하고 주먹을 불끈쥐고 일어서는 힘, 낙망하지 않는 힘은 어디서 오나 궁금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잔치집보다 오히려 더 전도하기 좋은 장소가 됩니다. 장례식 때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 덕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물어오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항상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아서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고난의 때에 낙담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함과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으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힘은 강합니다. 세상에는 재능있고 경륜있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무너지는 사람의 이유는 인격에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욕 앞에 무너지는 이유는 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양심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된 것은 아닙니다. 양심도 다 제각기입니다. 킬링필드를 주도했던 폴 포트가 미국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은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양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그분을 주로 가졌을 때 갖는 양심만이 참된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뿐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측량하고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여쭙볼 때 대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번도 대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을 찾았습니다. '말해줘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신 것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복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울 때는 우리가 원하던 것을 이루는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룰 때는 자신과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힘들고 성경충만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은 들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통해 이루는 일

의를 인하여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다른 이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당할 고난을 이용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다른 이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애매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하는 다른 많은 이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내 인격을 단련시킨다면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의 고난을 이렇게 쓰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셨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요셉만의 것이라면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영적인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로 인하여 열심히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의를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도신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완벽한 신앙고백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십자가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달리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불의한 죄인이며 멸망당해야 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영광은 이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증명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음이 아니고 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부활사건이 보여줍니다. 이 부활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뿐만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죄와 사단의 영들과 죽음의 세계에까지도 이 능력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20,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노아의 방주의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으로는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심판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구원받았던 홍수 이후의 세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의 복

우리는 흔히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번개라도 내리셔서 즉시 심판하신다면 다들 회개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땅에 강림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보이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거역하고 패역한 사람들을 당장에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런 심판을 행하셨다고 하십니다.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하면 복주고 잘못하면 심판한 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진정으로 회심한 일은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정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세례를 받은 것, 홍해를 건넌으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인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만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는 우리 영과 마음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눈에 보이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죄악이 심판을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물세례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심판을 받고 물과 함께 잠겨서 죽고 다시 물에서 일어날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방주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영광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게 모든 것을 축복과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어차피 세상이 가져갑니다. 어차피 그럴 것 주님을 위하여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인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게 하소서.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